조선사회과학자협회

통 보

1

2023

차 례

절세위인들. 5

인민정권 더하기 3 대혁명. 5

수령이 위대하면 작은 나라도 사상의 강국, 정치대국으로 된다. 6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그 승리도 과학. 7

오늘의 조선 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8 차전원회의 진행 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주요사상해설. 9

2023년은 어떤 해인가. 9

2023년 사업의 총적방향. 10

2023년 경제사업의 중심과업 11

국가사업의 제 1 순위 12

국토관리부문앞에 나서는 과업 13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것은 조선로동당이 제일 중시하는 정책적과업 15

육아정책은 일관하게 집행해야 할 사업 16

인민소비품생산에서 기본. 1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7 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주요사상해설 2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7 차전원회의의 기본목적 20
농사를 잘 짓는것은 조선인민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 20
조선로동당의 농업발전관. 21
2023년 농업생산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 22
2023년 알곡생산목표점령은 경제전반의 활성화의 담보. 22
2023년 알곡생산목표점령은 조선의 자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활적인 문제. 23
관개체계의 완비는 농업의 안정적발전담보를 위한 선차적과제. 2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 제 7 차전원회의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조선인민 26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힘찬 진군기세. 26
새로운 평양번영기에 창조된 또 하나의 건설기적. 27
12 개 중요고지점령을 위한 과학연구사업 적극 추진. 28
농업의 과학화, 정보화실현을 위한 연구사업 심화. 29
교육사업의 혁명적인 개선을 위하여. 31
근로자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 생산현장에서 전개. 32
과학기술의 견인기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담보 구축. 33

사회과학부문토론회 소식 34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5 돐을 맞으며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 진행 34

새로 출판된 사회과학부문 도서 소개. 37

특 집 40

좌 담 47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서 새로 제정, 수정보충된 법들을 통해 본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47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활동소식 52

주체사상연구토론회 일본에서 진행 52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 45 돐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에 관한 토론회들 진행 55

네팔전국련합토론회 진행 55

인디아전국토론회 57

민주꽁고에서 주체사상연구소조 결성 59

실 화 61

날마다 찾아온 청년 61

값을 정할수 없는 술 64

조선사회과학자협회
KASS

인민정권 더하기 3 대혁명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적기치높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던 시기에 진행된 어느한 회의에서였다.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에 대하여 연설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좌중을 둘러보시며 인민정권에 3 대혁명을 더하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는데 대한 유명한 명제를 내놓으시였다.

그로부터 여러해가 지난 후 동유럽나라들의 사회주의의 좌절과 붕괴라는 비극을 통해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 유명한 명제야말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위한 가장 정당하고 과학적인 혁명로선이라는것을 철의 진리로 아로새기였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그 엄혹한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사회주의기치를 펄펄 휘날리며 강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치는 조선의 자랑찬 현실이 그것을 증명하였다.

참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속에서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을 일반화하시여 인민정권 더하기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으로 정식화된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을 내놓으신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쌓으실수 있는 인류사적공적이다.

수령이 위대하면 작은 나라도 사상의 강국, 정치대국으로 된다

1988년 7월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한 일군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가 크다고 하여 위대한 사상이 나오는것이 아니라고, 비록 나라는 작아도 수령과 지도자가 위대하면 그 나라의 지도사상도 위대하다고, 이것은 진리이며 법칙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사상은 세계를 무기없이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이야말로 세계를 밝히는 횃불이고 지구를 움직이는 지레대이며 력사를 전진시키는 기관차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확신에 넘치신 음성으로 수령이 위대하면 작은 나라도 사상의 강국, 정치대국으로 된다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는 사상의 강국이고 정치대국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그 승리도 과학

《ㄷ.ㄷ》결성 90 돐을 며칠 앞둔 2016년 10 월 어느날이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인류의 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을 투쟁강령으로 내세운 《ㄷ .ㄷ》의 결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새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 선언이였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고 있는 오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식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사상이 있고 위대한 당이 있으며 위대한 인민이 있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라고, 우리식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도 과학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의 새로운 변혁과 발전에로 향한 전인민적투쟁이 심화되고있는 속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가 2023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제7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전진목표와 전략전술적원칙에 따라 국가의 리익과 안전환경을 견결히 수호하고 조선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국면을 새롭게 상승시키기 위한 2023년의 주요정책집행정형을 중간총화하고 하반년도의 진군로정에서 반드시 대책하고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정책적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는 2023년 주요정책집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하기 위한 투쟁방향과 과업들을 명시함으로써 조선인민의 필승의 신심을 백배해주고 과감한 진군기세를 격양시키였으며 바로 여기에 전원회의가 가지는 커다란 의의가 있다.

전체 조선인민은 지금 전원회의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2023년의 투쟁목표들을 기어이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주요사상해설

2023년은 어떤 해인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는 2023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 새겨질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되는 해라는데 대하여 밝혔다.

2023년은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 실현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세번째 해이다. 2022년에 조선인민은 5개년계획수행의 무겁고도 책임적인 투쟁에서 뚜렷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2022년의 성과와 경험을 적극 장려하고 증폭시켜 2023년에 결정적전진을 이룩하여야 최종목표 점령에로 보다 확신성있게 나아갈 수 있다.

2023년은 조국해방전쟁승리 70 돐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5 돐을 기념하게 되는 뜻깊은 해이다. 전 인민적인 과감한 투쟁으로 2023년에 5 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는 여기에 공화국의 륭성번영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애국업적을 후손만대에 끝없이 빛내여 나가는 길이 있다.

2023년에 전체 인민이 충성과 애국으로 일관된 최대의 분발력과 투신력, 필승의 자신심을 백배하며 나라의 전반적발전과 눈에 확연히 보이는 뚜렷한 성과를 다련발적으로 이룩해나가야 사회주의의

발전속도를 비상히 높일수 있고 국가의 전면적발전, 전면적부흥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2023년 사업의 총적방향

2023년 사업의 총적방향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5 개년계획 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는것이다.

2022년에 조선로동당은 5 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하는것을 기본투쟁과업으로 제시하였으며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치단결하여 간고한 투쟁을 벌려 힘있는 발전을 이룩하였다.

2023년은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가 제시한 5 개년계획 실현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해이다. 2023년에 제시된 과업들이 철저히 관철되여야 5 개년계획수행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고 전면적부흥, 전면적발전에로 향한 조선식사회주의의 전진속도를 더욱 배가해나갈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완수를 위한 더 높은 목표와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2023년을 국가경제발전의 큰걸음을 내짚는 해, 생산장성과 정비보강 전략수행, 인민생활개선에서 관건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해로 규정하고 전반적부문과 단위들의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것을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웠다.

2022년의 투쟁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교훈, 실제적전진에 토대하여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략을 찾아 국가발전의 활로를 열고 사회주의의 거창한 변혁과 발전을 줄기차게 이룩해 나가려는것이 조선로동당의 뜻이다.

조선인민앞에는 의연 피할수도 에돌수도 없는 장애와 난관들이 버티고있으며 이것은 오직 자체의 힘과 지혜, 자체의 분투로써만 타개하고 극복할수 있다. 전체 조선인민이 2022년의 투쟁을 통하여 격양된 기세를 더욱 고조시키고 올해 목표달성과 새로 제기된 전망과제 수행에 총궐기할 때 사회주의건설을 조선의 뜻과 의지, 시간표대로 폭넓게 진척시켜나갈수 있다.

2023년 경제사업의 중심과업

2023년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은 전반적부문과 단위들의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것이다.

인민경제의 전반적부문과 단위들에서 생산을 활성화하자면 현존생산토대와 잠재력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정확히 수행하며 생산물의 질을 제고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원료와 연료, 자재와 설비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하며 전반적생산공정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기술개조사업을 실속있게 할뿐 아니라 인재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생산장성의 돌파구를 열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정비보강계획수행에 박차를 가하는것은 국가경제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조건과 환경이 불리하다고 하여 현행생산계획수행에만 몰두하며 생산토대의 정비보강사업을 책임적으로 내밀지 않는다면 자기 단위는 물론 나라의 전망적인 경제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된다. 자기 단위의 생산공정과 설비들이 원성능을 유지하도록 일상적으로 정비보수하고 그를 보다 현대적으로 개건하는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사업이 아니라 당결정을 빛나게 관철하고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다.

정비보강계획수행을 위한 사업은 과학적기초우에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진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조건이 어렵고 현행생산이 긴장할수록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도입에 더 큰 힘을 넣어야 정비보강사업에서 뚜렷한 전진을 가져올수 있다.

국가사업의 제 1 순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는 2023년에도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여기에 만전을 기할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되였다.

그 어떤 천사만사에 앞서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것으로 여기고 기어이 지켜내려는것이 조선로동당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나라의 비상방역사업을 소홀히 하다가는 상상할수 없는 대재난을

겪을수 있다.

이것은 누구나 비상방역사업에서의 사소한 공간과 허점도 허용함이 없이 최대로 각성분발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때문에 조선로동당은 비상방역사업을 어제도 오늘도 국가사업의 제 1 순위에 놓고 여기에 만전을 기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고 있는것이다.

국토관리부문앞에 나서는 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전원회의는 2023년 국토관리부문앞에 나선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치수전략을 바로 세우고 근기있게 추진하며 당면하여 장마철에 대동강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재해성이상기후현상이 해마다 우심해지고있는 상황에서 물을 안정적으로 조절할수 있게 하며 대동강과 보통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생태환경, 보다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림복구사업을 과학적으로 전망성있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산림복구사업을 당정책적요구에 부합되게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하여서는 산림조성을 해도 산사태가 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며 혼성림도 나무들의 공생관계와 해당 지역의 기상기후조건, 토양상태, 산림의 조성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망성있게 조성하여야 한다.

도로건설방법을 개변시켜야 한다.

도로는 나라의 얼굴이며 문화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도로건설과 관리를 잘하여야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할수 있다.

도시경영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 모든 도, 시, 군들에서 살림집과 공공건물보수계획을 잘 세워 정상적으로 진행해나가며 과학적인 원림설계에 따라 관상적가치가 있고 그늘조성에도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고 가꾸어 도시마다 특색있는 경관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경영단위들에 나무를 가꾸는데 필요한 기공구들을 보장하고 자동청소차와 잔디깎는기계도 잘 만들어주어 도시관리를 기계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것은 조선로동당이 제일 중시하는 정책적과업

조선로동당이 제일 중시하고 품들여 추진하고있는 정책적과업은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전원회의는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조선로동당이 제일 중시하는 정책적과업은 우선 사람들의 먹는문제, 식량문제를 푸는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서 어느 하나라도 공백이 생기면 안되지만 그가운데서도 먹는 문제가 선차적이다.

온 나라가 력량을 집중하여 올해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내기 위한 선진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지력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전당, 전국, 전민이 농업전선을 진심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남새와 과수, 축산부문을 다같이 추켜세우는것과 함께 수산부문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수산물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바다양어와 양식을 활발히 벌리고 수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해 나가는것도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조선로동당이 제일 중시하는 정책적과업은 또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소비품생산을 늘이며 상업봉사사업을 개선하는것이다.

경공업부문과 지방공업부문에서 인민소비품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상업편의 봉사부문에서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시책이 하나라도 더 정확히

사람들에게 가닿을수 있게 현실성있고 합리적인 사업체계와 봉사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조선로동당이 제일 중시하는 정책적과업은 또한 육아정책을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일관하게 집행하는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어린이들에게 젖제품과 영양식품이 제때에 정확히 가닿게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며 영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육아정책은 일관하게 집행해야 할 사업

조선로동당의 육아정책은 2023년에도 언제나 놓치지 말고 일관하게 집행해야 할 사업이다.

2022년에 조선로동당은 례년에 없는 모진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미래의 주인공들인 아이들을 잘 키우며 그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는것을 최중대정책으로 틀어쥐고 완강하게 내밀었다.

조선로동당의 육아정책집행은 아이들의 성장발육을 촉진시켜 튼튼하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집행해야 할 사업,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중차대한 사업이다.

그러자면 염소와 젖소마리수를 늘이며 젖가루생산공정과 설비를 현대화하고 젖가공기술을 발전시켜 젖제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젖제품생산단위들과 공급단위들에 륜전기재, 랭동 및 저장 시설, 운반용기 등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위생안전성이 담보된 신선한 젖제품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빠짐없이 가닿도록 하여야 한다.

육아정책집행과 관련하여 반드시 중시해야 할 문제는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는것이다. 탁아소, 유치원들에 식량은 물론 물고기와 다시마가루, 알과 과일을 비롯하여 영양식품을 기준대로 공급하고 영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연구단위들에서 아이들을 년령에 따라 영양학적으로 어떻게 자래우는것이 과학적인것으로, 표준으로 되는가 하는 학술적인 기초와 지도서를 만들며 사회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영양관리를 비롯하여 양육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고 보급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기본

인민소비품생산은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현시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면한 생산의 량적장성에만 치우치면서 소비품의 질을 홀시하는것은 천하제일강국을 건설하는 오늘의 현실에 뒤떨어진 근시안적인 태도일뿐 아니라 주체의 인민관이 바로서있지 않은 표현이다. 질이 락후하여 인민들이 반기지 않는 제품은 애당초 만들지 않은것만 못하며 그런것들은 아무리 많은들 소용이 없다.

인민들이 쓰고사는 모든것은 어느것이나 다 완전무결한 최상의것이여야 한다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뜻이다. 생산량도 중요하지만 한가지를 만들어도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질좋은것을 만들어 공급하여야 실지 인민생활에 이바지되고 사람들속에서 자기의것에 대한 애착과 긍지가 생기며 나아가서 애국심이 더욱 공고화되고 강렬해지게 된다.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자면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과 함께 경공업부문에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주며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과학적인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집단안에 질제고의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인민소비품의 질이 높은가 낮은가 하는것은 결정적으로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일군들의 요구성이자 인민소비품의 질이다. 일군들이 높은 안목과 실력을 지니고 맡은 사업을 과학적으로, 책략적으로 전개해나가는것만큼 인민소비품의 질이 올라가게 된다.

일군들은 자기 공장, 자기 단위를 대표할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을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주요사상해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의 기본목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의 기본목적은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여 2023년 알곡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가까운 몇해안에 나라의 농업을 흉풍을 모르고 안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착실한 토대를 축성하는것이다.

농사를 잘 짓는것은 조선인민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

오늘 조선인민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은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것이다.

농사를 잘 짓는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문제이기 전에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다.

쌀이자 사회주의이다. 쌀을 많이 생산하여야 어디서나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확신성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하기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7 차전원회의에서는 2023년 알곡생산목표점령에로 전체 인민이 한결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농업발전관

조선로동당의 농업발전관은 한마디로 전국의 모든 지역, 모든 농장들을 동시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어느 한두 지역, 한두 농장, 몇개 포전에서의 다수확이 아니라 모든 농업생산단위들에서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여 나라의 농업전반을 다같이 발전시키는것이다.

농업부문에서는 벌방지대, 산간지대 할것없이 전국의 모든 농경지들에서 알곡소출을 높여야 조선의 농업을 흉풍을 모르는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성궤도에 올려세울수 있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조선로동당의 농업발전관에는 전체 인민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하루빨리 안겨주려는 숭고한 의도가 깃들어있다.

인민들이 사는 곳은 서로 달라도 생활수준에서는 지역적차이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이 조선로동당의 뜻이다. 한개 지역, 한개 농장, 한개 포전도 뒤떨어지거나 제자리걸음을 하지 않고 다같이 분발하고 다같이 전진하여 나라의 농업발전을 상승단계에 확고히 올려세울 때 이 땅 그 어디서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퍼지게 된다.

조선로동당의 농업발전관에는 주체적힘을 비상히 증대시켜 국가발전의 새로운 고조국면을 열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가 새겨져있다.

농업의 발전은 특정한 지역이나 한두 단위의 다수확성과만으로는

이룩할수 없는 방대한 과업이다. 특히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조선에서 농업생산의 파동성을 없애지 않고서는, 지역과 단위들사이의 차이를 줄이지 않고서는 언제 가도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국가부흥의 활로도 열어나갈수 없다. 뒤떨어진 단위를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지역간의 차이를 줄여 균형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전반이 동시에 일떠설 때 주체적힘은 더욱 배가되게 되며 자립, 자존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의 실체는 더욱 뚜렷해지게 된다.

2023년 농업생산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7 차전원회의에서는 2023년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뚜렷이 명시되였다.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여 농업전선을 힘있게 지원할데 대한 사상, 앞그루농사와 당면한 영농사업에 힘을 넣을데 대한 사상, 농업생산에 현대성과 선진성을 부여하는데서 제일 절실하고 효과적인 새롭고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농촌에 보내줄데 대한 사상, 관개체계를 완비하고 간석지개간과 새땅찾기로 경지면적을 늘일데 대한 사상, 농사에 대한 지도에서 결정적인 개선을 가져올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7 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사상리론들은 2023년 농업생산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2023년 알곡생산목표점령은 경제전반의 활성화의 담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7 차전원회의에서는 2023년 알곡생산목표점령에로 전체 인민이 한결같이 떨쳐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농업은 인민경제 2 대부문의 하나이다. 경제건설에서 필요한 많은 몫을 농업이 맡고있다. 현실적으로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되는 기름, 간장, 된장을 비롯한 기초식품과 당과류제품, 여러가지 가공품들의 원료, 자재가 어떻게 보장되는가 하는것은 농업생산력에 달려있다. 농업생산력이 장성해야 공업발전에서의 비약적장성도 이룩되게 된다.

이것은 2023년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는것이 경제전반을 활성화의 궤도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필수적담보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2023년 알곡생산목표점령은 조선의 자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활적인 문제

지금 적대세력들은 제재를 《만능》으로 여기면서 압살의 쇠사슬을 바싹 조이고 조선이 질식되기만을 기다리고있다. 현시기 날로 지속되는 재해성이상기후로 하여 세계적으로 알곡생산량은 현저히 감소되고있으며 조선을 도와주겠다는 나라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농사를 잘 짓지 못하면 남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며 그것은 결국 국가의 존엄을 훼손시키는것과 다름없는것으로 된다.

오늘 조선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강대무비한 군력을 비축하고 그 존엄을 최상의 높이에서 떨쳐가고있다. 이제 농업생산을 추켜세워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면 그 무엇도 두려울것이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보다 힘차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이것은 2023년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는것이 조선의 자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활적인 문제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관개체계의 완비는 농업의 안정적발전담보를 위한 선차적과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7 차전원회의에서는 전반적인 관개체계의 완비를 다그치는것을 현시기 농업의 안정적발전을 담보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내세웠다.

최근년간 농업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재해성이상기후현상이 해를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있는 사실은 관개체계를 정비보강하고 완성하는 사업을 보다 통이 크게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이 농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로 줄이고 농업생산에서의 피동성을 극복하자면 반드시 물문제를 풀어야 한다.

해마다 흉풍을 모르고 안전하게 농사를 짓자고 하여도 그렇고 전반적인 정보당수확고를 높이자고 하여도 결정적으로 현존관개시설을 정비보강하고 관개면적을 더욱 늘여야 한다.

관개체계가 완성되면 그만큼 논벼를 비롯한 알곡 정보당수확고를 더 높일수 있다. 이것은 농업생산의 성과여부가 다름아닌 관개체계에 달려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인민은 2023년에 계획된 관개공사를 강력히 추진하며 5개년계획기간 나라의 관개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제7차전원회의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조선인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힘찬 진군기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에서 12개 중요고지를 무조건 점령할 열의드높이 과감한 련속공격전을 들이대며 기세차게 내달리고있다.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립경제의 쌍기둥을 억척으로 지켜갈 신념의 맹세안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자체의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려놓고 설비들의 중소보수를 질적으로 진행하는것과 함께 산소열법용광로의 운영기술을 더욱 향상시켜 차지당 쇠물생산량을 늘이기 위해 적극 분발하고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도 철강재증산으로 당을 받들 불같은 결의안고 불리한 객관적조건을 주동적으로 타개하며 철강재생산을 계속 늘이기 위해 분투하고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예방보수를 철저히 진행하여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들을 장려하고 증폭시켜 전력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전력생산자들은 설비가동률을 제고하고 보이라 및 타빈발전기들의 효률을 높이고있으며 평양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화력발전소에서도 계절이 바뀌는데 맞게 생산조직을

빈틈없이 하고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탐구도입하여 전력생산을 늘이고있다.

자립경제발전의 전초기지를 지켜선 석탄공업부문 일군들과 탄부들도 석탄생산에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순천,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각지의 련합기업소들에서는 전진을 가로막는 난관이 적지 않지만 각이한 암질조건에 따르는 선진적인 발파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부족되는 부속품, 자재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하면서 굴진속도를 높이고있다.

림업부문에서도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 중요건설장들에 보내줄 통나무생산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가렬한 전화의 불길속에서 전시수송을 보장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올해 철도화물수송계획수행에 매진하고있다.

특히 평양철도국에서는 유일사령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화차머무름시간을 단축하며 기관차와 화차들의 맞물림조직을 치밀하게 하는 등 현존수송능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면서 두줄기 궤도우에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새로운 평양번영기에 창조된 또 하나의 건설기적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과 자립, 자력의 사상을 높이 받들고 력사의 역풍을 맞받아 조선식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이룩해가는 주체조선의 변혁적인 발전상을 온 세상에 떨치며 수도 평양에 인민의 리상거리가 또 하나 일떠섰다.

인민이 바라는 모든것을 정책으로, 숙원사업으로 내세우고 평양시 5 만세대 살림집건설을 해마다 강력히 전개해나가는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따라 조선의 건설자들은 불과 1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화성지구에 일떠세우는 첫단계의 살림집건설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화성지구에 펼쳐진 거창한 전변은 인민과 한 약속,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이 결실을 보아야 한다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인민관과 사회주의국가의 무궁무진한 저력,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항상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충성과 애국으로 받드는 조선인민의 견인불발의 정신력과 창조력이 안아온 세기적인 기적이다.

12 개 중요고지점령을 위한 과학연구사업 적극 추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발전 12 개 중요고지점령을 과학기술로 힘있게 견인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은 용해시간을 단축하고 전력소비를 낮추며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주체철련속장입기를 설계제작하는데서 많은 전진을 이룩하고있으며 압축기들의 기계적상태를 제때에 측정, 예측할수 있는 체계개발을 끝내고 도입준비를 다그치고있다.

농업과학원의 과학자들은 전국의 부침땅들에 대한 필지별토양분석 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저수확지들에서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토양개량기술과 관리방법들을 전국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또한 논벼의 생육기일을 훨씬 앞당기면서 소출을 높일수 있는 농업기술제품을 연구해낸데 이어 효과성검증을 위한 시험도입을 진행하고있으며 DNA 분석에 의한 종자검사방법을 확립하는데도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각 도농업과학연구소들에서도 지역의 과학농사를 주도해나가는 기수들답게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을 극복할수 있는 과학적인 농사체계와 방법을 확립하는데 연구력량을 총집중하여 과학연구활동을 벌려나가고있다.

전력공업연구소, 전력정보연구소를 비롯한 전력공업부문 과학연구단위 과학자들은 전력설비들과 구조물, 송변전시설들을 질적으로 정비보수하고 보강할수 있게 과학기술적인 대책들을 세우며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의 운영수준제고와 수력발전소실시간효률측정체계도입 등 많은 연구목표수행에서 혁신성, 선진성, 완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심분투하고있다.

경공업연구원의 과학자들은 수압직기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는데서 관건적인 문제들을 기동성있게 해결하였으며 련조기보수정비에 필요한 기료품개발에서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이밖에 석탄연구원, 철도연구원을 비롯한 많은 과학연구단위 과학자들도 올해를 국가경제발전의 큰걸음을 내짚는 해로 만드는데서 과학기술의 위력을 강화해갈 열의드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혁신적인 개발창조기풍을 발휘해나가고있다.

농업의 과학화, 정보화실현을 위한 연구사업 심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7 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농업과학원에서 농업의 과학화, 정보화실현을 위한 연구사업이 심화되고있다.

농업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 품종육종과 선진적인 재배기술을 연구도입하는데 중점을 두고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조선의 기후조건과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생육기일이 짧고 생산성이 높은 논벼품종들과 봄밀품종, 강냉이품종, 역병견딜성이 강하면서도 건물질함량과 수확고가 높은 감자품종 등에 대한 연구를 선행시키고있다.

또한 알곡 대 알곡 두벌농사에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재배기술과 방법, 염도가 높거나 물이 부족한 간석지논들에서 소출을 높일수 있는 기술과 방법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있다. 한편 농업생산과 관련한 과학연구단위들을 첨단기지화하는것을 비롯하여 농업과학기술토대를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는 사업도 박력있게 추진하고있다.

이밖에도 손전화기를 리용하여 포전에서 농작물의 영양상태를 진단하고 김과 병해충의 발생상태를 감별하여 비료와 농약의 종류선택, 그것을 뿌리는 시기와 량을 신속정확히 규정해주는 실시간봉사 프로그람의 개발도입과 무인기를 리용한 농약과 비료뿌리기 등 농업을 선진적이며 현대적인 농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교육사업의 혁명적인 개선을 위하여

교육사업에서 보다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올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전원회의사상을 높이 받들고 교육부문에서는 교육사업의 혁신적이며 발전적인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토의대책되고있다.

초등 및 중등교육부문에서 학생들에게 일반기초지식을 충분히 소유시키는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들의 천성과 소질에 따르는 교육도 따라세울수 있게 하며 고등교육부문에서는 실천능력을 갖춘 쓸모있는 인재, 과학기술발전과 경제발전에서 핵심적역할을 할수 있는 특출한 인재들을 더 많이 양성하고있다.

연구형대학, 일류급학과건설을 추진하며 새로운 교수관리제도를 확립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세워지고있다.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고 학생들의 인식효과를 높일수 있게 형태별교수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며 교원력량을 잘 꾸리고 그들의 교육자적자질과 능력을 제고하는것을 비롯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진지한 론의로 해결해나가고있다.

제 1 중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창조적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시험방법을 교종별로 창조도입하고 교육강령을 과학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사업이 구체화되고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도, 시, 군들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실정에 맞게 일신하며 대학들에서 현대적인 실험실습설비와 기구들을 창안제작하여 실천실기교육을 잘하기 위한 사업 등 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작전안들이 수립되고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 생산현장에서 전개

사회주의인민적보건시책을 더욱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실질적인 혜택과 보호를 받도록 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전원회의 과업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안의 여러 중앙병원에서 현장의료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있다.

보건성과 해당 단위들에서는 수도의 근로자들을 위한 치료예방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갈 목표밑에 중요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현장의료봉사조직을 면밀히 하였다.

평양산원에서는 유능한 의료일군들로 치료대를 뭇고 당결정관철을 위한 생산투쟁, 창조투쟁으로 들끓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의료봉사를 하고있다.

생산현장에 진단설비들을 전개한 이들은 사소한 질병요소들까지 조기진단하고 치료를 해주면서 녀성근로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혁명과업수행에 전력하도록 성의를 다하고있다.

류경안과종합병원 의료일군들도 평양화력발전소에 나가 근로자들에 대한 검진 및 치료사업을 적극 벌리는 한편 위생선전도 하면서 그들이 전력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도록 떠밀어주었다.

보건성 치과종합병원 의료일군들도 올해를 새로운 전진과 비약적성과들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여러 공장들에 나가 적극적인 의료봉사활동을 벌리면서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증산열의를 고조시키고있다.

보건성 피부전문병원, 류경치과병원 의료일군들도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해간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현장의료봉사활동에 성심을 바치고있다.

과학기술의 견인기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담보 구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전원회의사상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는 올해 5 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기 위한 중점과제, 연구과제들을 정하고 여기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과학기술행정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에네르기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며 합리적인 제강기술을 도입하는 등 주체철생산체계를 기술적으로 완성하고 생산능력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농업부문에서는 선진영농기술을 받아들여 각이한 생태지역에 맞는 농작물품종의 재배기술을 완성하는것을 비롯하여 절박한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등 교육과학기관의 연구사들은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담대한 배짱과 포부를 안고 맹렬한 두뇌전, 탐구전을 벌려 가치있는 기초과학연구성과를 내놓으며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에 론문들을 발표 및 투고하고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가통합인재관리체계를 통하여 부문별, 지역별, 단위별로 과학기술인재들을 빠짐없이 장악하며 그들이 자립경제발전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며 과학연구단위들과 생산단위들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사회과학부문토론회 소식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5 돐을 맞으며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 진행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5 돐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가 2023년 2 월 3 일 인민대학습당 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과학, 교육, 혁명사적부문, 당간부양성기관의 교원, 연구사,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혁명무력건설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시고 세기를 이어 빛내이시였으며 주체혁명의 새시대와 더불어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신 절세위인들의 군건설령도업적을 깊이있게 해설론증한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빈터우에서 자력건군의 대업을 실현하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라는데 대하여서와 1948년 2월 8일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이 창건된것은 혁명무력건설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사변이라는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조선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으시고 군사정치간부문제와 군종, 병종건설문제, 병기기술자문제 그리고 정규군건설에 소요되는 방대한 군수물자보장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하신데 대하여 자료적

해설하였다.

토론자들은 조선인민군이 창건됨으로써 자기의 강한 민족군대를 가지고싶어하던 조선인민의 세기적숙망이 마침내 실현되게 되였으며 공화국은 창건 첫날부터 자체의 튼튼한 무력적담보밑에 자주적발전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군이 창건후 나라의 정치경제적 위력을 튼튼히 담보하고 새 조선건설을 힘있게 보위하였을뿐 아니라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는 군사적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혁명의 년대마다 조선로동당의 억척의 지지점이 되여 혁명의 제일선에서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혁혁한 공적을 세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혁명무력에 대한 령도를 시작하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나날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령군술로 조선인민군을 불패의 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신 강철의 령장이시라는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토론자들은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을 군력강화의 기본방도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의 유일적 령군체계를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인민군대 당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도록 이끄시였으며 인민군대를 그 어떤 침략자들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게 일당백으로 준비되고 현대적으로 무장된 강군으로 키우는데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선군정치에 의하여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혁명대오의 최정예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부터 조선식사회주의가 굳건히 수호되였으며 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이 오늘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새로운 전환기의 첫 기슭에서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밝혀주시고 오중흡 7 련대칭호쟁취운동을 군건설의 총로선으로 제시하시여 인민군대를 당중앙결사옹위의 최정예전투대오로 강화발전 시켜나갈수 있는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상중시론, 사상만능론을 백승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군인대중의 혁명사상배양, 정신력배양에 첫째가는 힘을 넣으시여 인민군군인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 정신력의 최강자들로 억세게 키우신데 대하여 그들은 지적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전군에 명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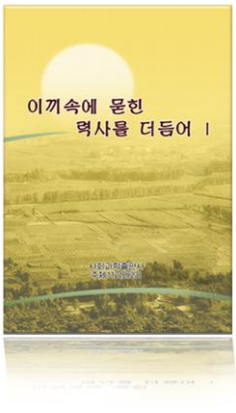
명포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전례없는 새로운 형식의 훈련들이 강도높이 진행되여 인민군대의 실전능력이 더욱 향상되고 조선식의 위력한 주체무기들이 련이어 개발생산되여 실전배비됨으로써 인민군대의 타격능력이 비상히 강화된데 대하여 자료적으로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조선인민군은 앞으로도 혁명적무장력 으로서의 자기의 본태와 강대성을 떨치며 조선식사회주의의 비약적발전을 무장으로 옹호하고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갈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적군건설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무적의 군력을 지닌 강대국의 공민된 자긍심을 안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갈 의지를 더 굳게 가다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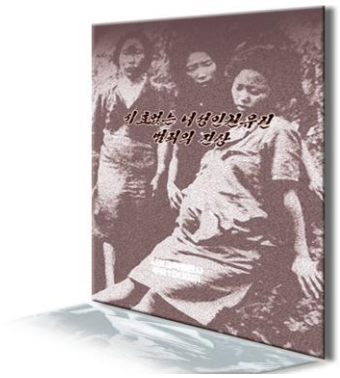
새로 출판된 사회과학부문 도서 소개

조선사회과학출판사에서 2023 년 상반년에 여러종의 도서들을 출판하였다.



도서 《이끼속에 묻힌 력사를 더듬어》(1)는 유구하고도 찬란한 력사였건만 외래침략자들에게 짓밟히고 사대주의자들에 의하여 두터운 이끼속에 영영 파묻혀버릴번했던 고조선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여러 고대국가들과 강대하였던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백제, 신라, 가야를 비롯한 중세초기봉건국가들의 력사와 문화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도서《시효없는 녀성인권유린범죄의 진상》은 지난 시기 출판물들과 학술토론회 등을 통하여 발표된 10 여건의 대표적인 연구론문들을 통하여 과거 일제가 감행한 일본군성노예범죄의 진상을 날날이 까밝힘으로써 조선인민의 반일계급의식을 높여주고 앞으로의 학술연구를 더욱 심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밑에 출판되였다.



도서 《민족의 넋을 지킨 화가》는 일제시기에 꺾었던 붓을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조국과 인민, 민족을 위해 다시 잡고 조선의 민족미술발전에

기여한 화가 김관호의 한생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인 사실자료들을 안받침하여 서술하였다.

《임진조국전쟁총서》 전 7 권 중 임진조국전쟁 시기의 군사제도와 군사전법, 전쟁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들과 그들의 투쟁내용, 그 시기 력사를 반영한 민족고전들, 일본침략자들이 감행한 만행과 후과 등이 풍부한 자료들에 기초하여 서술된 4 권의 도서들이 이미 출판된데 이어 의병과 관군의 투쟁을 중심으로 임진조국전쟁의 가혹성과 조선인민의 용감한 투쟁, 그 시기 무기무장의 제조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과 그 과정에 이룩된 성과들을 과학리론적으로, 자료적으로, 력사주의원칙에서 종합체계화한 도서 그리고 1591 년 1 월～1598 년 11 월까지의 력사적사실을 취급한 년표를 포함하여 3 권의 도서들을 출판하였다.

이밖에 아시아의 47 개 나라와 지역에서 살고있는 200 여개의 민족, 종족들에 대하여 서술하고 500 여개 아시아의 민족, 종족의 명칭에 대한 색인을 부록으로 준 도서 《세계민족편람》(아시아편)도 출판하여 인민들로 하여금 민족적긍지와 자부심과 함께 투철한 반일의식을 간직하고 귀중한 력사적경험과 교훈을 찾으며 상식수준을 높이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1948-2023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1948-2023
2023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1948-2023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1948-2023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1948-2023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1948-2023
2023
2023
1948
2023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성대히 진행

좌 담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서 새로 제정, 수정보충된 법들을 통해 본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조선사회과학자협회통보는 이번호에 조선로동당이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서 부문법들을 새로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확고히 실현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협회 일군들과 나눈 좌담을 싣는다.

렴정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만사람이 관심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실상에 대하여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서 새로 제정되거나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문법들을 놓고 이야기하자고 이렇게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하였습니다.

해당 나라의 정치가 어떤 정치인가 하는것은 그 나라의 법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 정치의 한 표현형식이며 실현수단이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경; 그렇습니다. 법의 밑바탕에는 해당 정당이 펴는 정치가 놓여있고 법의 내용은 정치에 의하여 규정되게 됩니다. 법의 내용과 그 실행을 보면 정당이 펴는 정치의 성격에 대하여 잘 알수 있습니다.

인민을 자신의 하늘로 여기고 떠받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선로동당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주, 민주, 인덕정치를 구현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헌법과 부문법들을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왔습니다.

리정화; 김창경선생이 이야기하였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없는 인민사랑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법제정과 집행이 다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철저히 복종되여왔습니다.

렴정실;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서 새로운 법들이 태여나고 이미 있던 법들이 수정보충되였는데 그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싶습니다.

윤용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할데 대한 새로운 사상을 제시하시고 공화국법들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십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의 편의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리상사회건설을 위한 새로운 법들이 채택되였습니다.

김창경; 우선 인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여러 부문법들이 새로 제정되였습니다. 공원, 유원지관리와 샘물관리에 관한 법, 도시를 아름답고 문명하게 꾸리는것과 관련한 법, 대기오염과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에 관한 법 등을 실례로 들수 있습니다. 이 모든 법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아름답고 문명한 문화생활조건과 환경을 보장해주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면모를 개변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어리여있습니다.

리정화; 그뿐이 아닙니다. 시, 군발전과 시, 군건설을 위한 세멘트보장과 관련한 법, 교육강령집행과 편의보장에 관한 법, 어린이영양식품 및 양육조건보장에 관한 법, 제대군관생활보장에 관한

법, 비상방역과 관련한 법, 원격교육에 관한 법 등이 새로 채택되였습니다. 그리고 녀성들에 대한 권리보장에 관한 법과 어린이보육교양에 관한 법, 사회주의로동과 보수, 휴식에 관한 법과 년로자보호에 관한 법 등 많은 부문법들이 수정보충되였습니다.

윤용남; 얼마전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제 7 차회의에서는 농촌진흥을 강력히 다그치고 농민들에게 더 좋은 로동조건,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 해주기 위한 법과 인민들에게 더 문명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마련 해주기 위한 법이 채택되였습니다.

렴정실; 지난 10 여년간 새로운 부문법들이 제정되고 이미 있던 법들이 수정보충되였는데 법들에는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하고 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정치실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방도들이 뚜렷이 명시되여있지 않습니까?

김창경; 예. 4 개장 61 개조로 되여있는 어린이영양식품과 양육조건보장과 관련한 법에서는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여러가지 어린이용품을 생산계획에 맞물려 제일 좋게 만들며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원가를 보상하는 정도 또는 그보다 낮게 값을 정하고 그 차액은 국가 또는 지방예산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식료품생산과 공급규정, 어린이양육조건보장과 어린이용물자수송보장을 위한 기관과 단위들에 대하여, 이 법에 대한 지도통제내용과 통제기관들도 정확히 규정하고있습니다.

리정화; 7 개장 55 개조로 되여있는 녀성들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에서도 녀성들에게 남성과 꼭같은 사회적 및 가정적권리를 보장한다는데 대하여 밝히고 국가적으로 녀성근로자에게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240 일산전산후휴가를 준다는것을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녀성근로자들에게 금지된 로동분야에 대하여,

3 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근로자들에게 특혜를 줄데 대하여, 녀성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기관들과 단체들의 임무와 감독통제기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백히 규정하고있습니다

윤용남; 5 개장 34 개조로 되여있는 시, 군건설을 위한 세멘트보장에 관한 법에서도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계획과 생산조건보장으로부터 공급과 수송비용, 시, 군건설세멘트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렴정실; 우리 공화국법전들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되였다는것은 사회주의경제, 문화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것을 법으로 채택하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고 봅니다.

김창경; 그렇습니다. 조선에서는 경제발전의 주객관적조건, 매 시기 혁명발전의 요구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기술발전계획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경제, 문화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그것을 법으로 채택합니다. 그 법들은 경제와 문화발전을 위한 방도들을 명시하고 확고한 전망을 열어주는 법조항들로 되여있어 계획수행을 담보하고 인민들에게 나날이 향상된 물질,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고있습니다.

렴정실; 정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새로운 법들이 마련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더욱더 인민을 위한 법으로 발전완성되여

가고있습니다.

우리 공화국법의 인민적성격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흉내낼수도 모방할수도 없는것입니다.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밑에서만 이처럼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반영하고 그 실현을 확고히 담보하는 인민의 법전들이 태여날수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리정화; 옳은 말입니다.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자 권세이고 독점권, 지배권이며 무제한한 자유권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구현된 공화국법들에 의하여 전체 인민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법적으로 충분히 담보되고 철저히 보장되고있습니다.

윤용남;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는 법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공화국공민들의 끝없는 영예이고 행복입니다.

하기에 우리 공화국공민들은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것을 명기한 우리의 공화국법들을 존중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

렴정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앞으로 사업에서의 성과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체사상연구토론회 일본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1 돐,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 45 돐에 즈음하여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련락회와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공동주최로 2023 년 4 월 15 일 도꾜에서 주체사상연구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일본의 주체사상연구조직, 일조우호단체 인사들,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총련 조선대학교 일군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과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 등이 참가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이 화상방식으로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사회과학자협회 그리고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과 부리사장,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회 서기장을 비롯한 여러 인사가 토론회앞으로 축전들을 보내여왔다.

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가 사회를 하고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련락회 대표상담역 이에 마사지,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 1 부의장 겸 조직국장 박구호가 연설하였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 1 부의장 겸 조직국장은 지난 수십년간 세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격동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었으며 인류는 여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붕괴와 같은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주체의 사회주의위업, 반제자주위업은 결코 좌절됨이 없이

꿋꿋이 전진하여왔다고 말하였다.

조선인민은 하나로 굳게 뭉쳐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인민대중중심의 리상향을 꾸리기 위해 매진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온 세계의 자주화는 이미 돌려세울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강연들이 있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라몬 히메네스 로뻬스는 **김일성**주석을 떠나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에 대해 말할수 없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구소창립과 관련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사실을 언급하였다.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은 반사회주의선전과 조선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 세계적인 대정치동란속에서도 중단없이 진행되여왔다, 행사참가자들모두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널리 연구보급하여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공헌하기 바란다고 그는 말하였다.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서기장 마떼오 까르보넬리,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 엘레아싸르 알다란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고결한 위인적풍모와 이룩하신 업적을 칭송하고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성의 원칙과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의 주체사상연구보급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 가마꾸라 다까오는 제국주의의 야만성과 횡포성, 침략과 략탈의 본성을 까밝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닌 막강한 군사적위력을 찬양하면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력들과의 련대강화, 자주확립이야말로 평화이라고 주장하였다.

총련 조선대학교 학장 한동성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12 년 12 월 1 일 창립 60 돐을 맞는 사회과학원 과학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신 력사적서한 《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의 기본내용을 해설하였다.

그는 절세위인의 불후의 로작을 지침으로 하여 주체사상연구를 더욱 심화시키며 전 세계 주체사상신봉자들과의 교류를 적극화하여 자주화위업실현에 이바지할 의지를 피력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편지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김정일**각하에 의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발전풍부화되였으며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되였다고 밝혔다.

편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고계시는데 대해 격찬하고 **김정은**각하께서 이끄시는 조선의 모습은 세계인민들이 지향하는 자주, 사회주의에로의 리정표로 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긍지높은 력사를 돌이켜보면서 **김일성**주석에 대한 경모의 정을 누를길 없으며 그이의 명석한 통찰력과 선견지명에 감탄을 금할수 없다, **김일성**주석께 충심으로 되는 경의를 드린다고 편지는 서술하였다.

편지는 **김일성**주석의 고무를 가슴에 새기고 **김정은**각하를 따라배우면서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과 함께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높이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 45 돐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에 관한 토론회들 진행

네팔전국련합토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1 돐,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 45 돐에 즈음하여 2023 년 4 월 5 일 주체사상에 관한 네팔전국련합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행사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행사장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11 돐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45 돐에 즈음한 네팔전국련합토론회》라는 글발이, 좌우측에는《위대한 주체사상 만세!》,《네팔조선친선만세!》라는 글발이 나붙어있었다.

행사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사진문헌들이 정중히 모셔져있었으며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 결정관철에서 조선인민들이 이룩한 경이적인 성과들, 조선의 어린이들과 인민들의 행복상, 4월의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조선인민들, 무진막강한 군력을 보유한 조선인민군의 열병식과 중요 군사활동, 여러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연구보급활동들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장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위대성도서들, 네팔의 연구조직들이 출판발행한 위인칭송도서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위대성기사들이 게재된 네팔의 신문들과 잡지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장에는 또한 네팔 조선의 자주정치연구쎈터와

네팔자력갱생연구회가 출품한 조선의 미술 및 수공예작품 20 여점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장에서는 자주로 빛을 뿌리는 조선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록화편집물들이 상영되였다.

행사에는 네팔의 정당, 사회단체 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이 보내여온 축전이 랑독되였으며 발언과 토론들이 있었다.

전 네팔국회 대표의회(하원)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의 생애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사회건설,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바쳐진 고귀한 한생이다.

그이께서는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진보적인류가 따라배워야 할 위대한 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의 전 행정에 구현하시였다.

조선은 자기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자력갱생의 나라, 주체의 나라이다.

그는 조선을 방문하고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해나가는 자랑찬 현실을 직접 목격한데 대해 피력하고 네팔인민들도 주체사상과 조선인민의 투쟁기풍에서 많은것을 배워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적인 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커다란 공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을 인류의 영원한 태양으로 호칭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수령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그 기치아래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시였으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보장에 크게 기여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오늘과 같은 불안정한 정세하에서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조선을 번영하는 강국으로 빛내여나가신다고 격찬하였다.

네팔주체연구소 소장은 이 세상 그 어느 명인도 따르지 못할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의 거대한 업적을 찬양하고 이렇게 계속하였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신다.

해마다 국가적투자로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시고 중요당회의에서 육아정책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해주시였으며 전국의 학생들에게 새 교복도 안겨주시였다.

제국주의침략세력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막강한 국방력을 마련하여 사회주의조선을 굳건히 수호하도록 하시였다.

네팔자력갱생연구회 위원장은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각 지역 주체사상연구소들의 조직구성과 활동정형을 개괄통보하고 네팔에서 주체사상연구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네팔 조선의 자주정치연구쎈터 위원장, 선군정치연구 네팔문학연단 위원장, 선군정치지지협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인사는 주체사상의 특징과 지도적원칙, 사람중심의 철학이며 가장 철저한 인민철학인 주체철학의 본질적내용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인디아전국토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1 돐,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 45 돐에 즈음하여 《무장충돌, 자력갱생, 세계평화》라는 주제의 인디아전국토론회가 2023 년 4 월 8 일 뉴델리에서 진행되였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와 인디아인민당,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회, 지식인주체사상연구회, 주체철학연구위원회, 델리종합대학을

비롯한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의 기조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인류공동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는 태양절이라고 하면서 걸출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혁명가, 희세의 정치원로, 창조와 건설의 영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그들은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인류자주위업실현을 위하여 다 바치신 **김일성**주석의 빛나는 생애와 업적은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각하께서 발전풍부화하신 주체사상은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그 생활력이 더욱 뚜렷이 실증되고있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조선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기상을 만방에 과시하고있다고 그들은 찬양하였다.

그들은 주체사상의 진수는 자립이며 자립은 자력갱생에 의해 실현된다, 자력갱생이 없는 자립은 한갖 리론에 불과하다, 모든 분야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확립해나가는 조선의 모습은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자주의 길로 나가도록 고무해준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자립을 실현한다면 세계평화도 이룩될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으로 하여 국제정치정세는 더더욱 불안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세계평화와 안정의 파괴자, 긴장격화의 장본인인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였다.

오직 군사적우세만이 미국의 침략적기도를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할수 있다,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미국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계시기에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책동도 조선을 어쩌지 못할것이며 조선인민은 언제나 승리할것이다,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류는 조선인민의 위업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할것이다고 확언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민주꽁고에서 주체사상연구소조 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1 돐에 즈음하여 2023 년 4 월 5 일 주체사상연구 민주꽁고전국위원회는 킨샤사에서 《주체사상연구곰베구역소조》 결성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는 주체사상연구 민주꽁고전국위원회 위원장, 부총서기를 비롯한 전국위원회 성원들과 연구소조 책임자들 30 여명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부총서기가 연구소조 성원들을 소개하고 조정자, 부조정자를 선거하였으며 주체사상국제연구소를 중심으로 각 대륙에 조직되여있는 주체사상연구조직체계와 전국위원회의 구성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모임에서는 선거된 새 연구소조 책임자, 부책임자, 서기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심도있게 연구보급하며 그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참가할 결의들을 다짐하였으며 전국위원회 고문, 위원장의 축하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게 된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결성모임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고 연구소조조직의 목적과 의의, 활동방향을 개괄적으로 언급하였다.

발언자들은 주체사상을 연구하는것은 연구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의 진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단한 사색과 탐구를 통해 민주꽁고의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민주꽁고의 현실에 부합되는 사회를 건설할 행동방향을 모색하며 광범한 대중을 의식화하자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민주꽁고의 미래이며 주인인 청년들이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며 자주적인간으로 사느냐 아니면 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옳바른 선택은 오직 주체사상에서만 찾을수 있다고 하면서 모두가 동지적으로 굳게 단결하여 주체사상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실 화

날마다 찾아온 청년

영국주재 조선대사관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술전시회》가 개막되였을 때 수많은 영국사람들과 각국의 외국인들까지 물밀듯이 찾아왔다.

그들중에는 개막 첫날부터 날마다 찾아오는 청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재크 와렌이였다. 그는 동료들을 데리고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전시회장에 나타나군 하였다.

동료들에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도 높았다.

《조선의 미술가들은 영국의 현실도 생동하게 그렸소.》

그의 말대로 전시회장에는 조선미술가들이 평양에서 창작한 작품들뿐 아니라 런던에 체류하면서 직접 창작한 《트라팔가광장》과 《템스강변의 풍경》, 《런던탑의 아편꽃바다》 등도 전시되여있었던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오가는 그속에서 한번도 아니고 두번, 세번 날마다 찾아와 전시된 작품들을 유심히 보고 또 보는 그의 모습을 보며 주최자측의 일부 사람들은 그가 미술가인 모양이라고 지레짐작을 하기도 하였다. 아마도 작품들에 대한 애착이 너무도 커서 날마다 오는것이라고.

사람들은 《하횡톤 포스트》에 실린 글 《조선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싶다》를 읽어보고서야 그 청년의 심정을 알수 있었다. 재크 와렌이 쓴 그 글은 다음과 같다.

《1990 년대에 태여난 우리 세대들은 아버지들대와는 달리 세계를

동서방으로 갈라보려고 하지 않는다.

동서방사이에 문화와 전통, 사회와 력사의 차이가 존재하고있지만 랭전시대가 무너진 오늘 <우리> 혹은 <너희들>이라는 개념이 더이상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오늘날 서방을 비롯하여 세계는 조선에 대한 그릇된 편견에 사로잡혀있다. 1948 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수십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세상사람들의 눈에 신비로운 나라로 남아있는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전 영국수상 윈스톤 쳐칠은 한때 쏘련을 안개속에 가리워진 수수께끼의 나라라고 표현하였다. 쳐칠이 아직 살아있다면 조선을 어떻게 표현했겠는지…

나는 3 일 저녁 조선미술전시회 개막식에 참가하고 조선의 미술가들 역시 우리와 다름없는 사람들이라는것과 그들이 창작한 여러 미술작품들을 통해 조선에도 영국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이 존재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지금까지 서방영화제작업자들이 만든 조선에 대한 기록영화들은 모두 조선을 비방하는데만 치중하여왔다. 나는 세계적으로 정치적론쟁거리가 제일 많은 조선에 대하여 새로운 견해를 가지고 조선의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영화를 한번 잘 만들어 볼 결심이다.

24 살의 영국청년으로서 나는 나와 나이가 같은 24 살의 조선청년들이 활발히 벌리는 체육활동을 영화의 기본줄거리로 담을 계획이다.

조선청년들에게도 영국청년들과 같은 생활상 공통점이 꼭 있을것이다. 조선미술전시회에 전시된 작품들을 보면 조선에도 정서적인 생활이 있다고 확신한다. 앞으로 내가 만들 영화에 대한 평가는 영국의 관중들에게 맡길 생각이다.》

알고보니 그는 미술가가 아니였다. 영국 《필터비유》영화제작사 연출가인 그는 조선을 방문한적이 없지만 조선의 미술가들의 생신한 작품들을 보자 마음속에서 솟구쳐오르는 영화적령감을 억제할수 없어 날마다 전시회장으로 달려왔던것이다.

그는 분명 좋은 영화를 만들것이다.

값을 정할수 없는 술

까뜨만두의 사끼야의 집은 늘 손님들로 흥성거린다.

오늘도 한 친구가 놀러왔다.

《이보라구 친구, 자넨 나와 어떤 사이인가?》

《어떤 사이긴, 가장 가까운 친구지간이지.》

《그런데 한가지 섭섭한게 있네.》

《그건 또 무슨 소리인가? 우리 이젠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도록 언제 한번 서로 다툰적도 없는데 어쩌면 그런 소릴 다 하나?》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집의 주인인 네팔 《아르판》신문사 책임주필이며 네팔기자협회 위원장인 네팔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위원장 만주 라뜨나 사끼야이다.

그와 마주앉은 늙은이는 오랜 친구여서 참으로 서로의 비밀이 따로 없고 술한잔이 있어도 나누어마셔야 후련해하는 친구이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오늘은 어찌된건지 그냥 약을 올린다.

사끼야는 참으로 어이없었다.

《자네 쩍하면 자랑하는거 있지? 그걸 이젠 나에게 팔라구.》

쩍하면 자랑하는거라니?

그제서야 사끼야는 깨도가 되여 눈길을 돌리였다.

그의 시야에 《주체의 방》에 있는 유리장속의 인삼술병 2 개가 안겨왔다. 《주체의 방》이란 사끼야가 조선에서 가져온 주체사상에 관한 책들과 자기가 한평생 기자생활을 하며 조선에 대하여, 조선의 수령들과 주체사상에 대해 쓴 기사들이 실린 신문들을 보관하는 장서가 있고 조선의 국기를 걸어놓은 방이다.

그 신문들중에는 1979 년 7 월 6 일부 《아르판》지도 있다. 거기에는 그해 6 월 19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네팔기자대표단을 접견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과 접견석상에서

사끼야의 질문에 주신 대답이 게재되여있다.

그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동북부의 한 지방도시에서 사끼야를 단장으로 하는 네팔기자대표단을 접견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날 사끼야에게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마다 정치적리념과 신앙이 다르고 사회제도에서 차이가 있지만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자기 인민을 더 잘살게 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오직 자기 식으로, 자기 인민이 요구하는대로 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가지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세계인민들이 어떠한 지배와 예속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자주, 자립, 자위를 지향하여나가는것이 현시대의 기본추세로 되고있습니다.》

그날의 그이의 태양같은 모습이 떠오르는 순간 사끼야는 쏘파등받이에서 웃몸을 약간 들썩하니 일으키면서 친구의 반들거리는 이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안돼.》

유리장속에 소중히 보관되여있는 그 인삼술은 수십년전 그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였다.

그 인삼술을 오늘까지 그대로 보관해두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랑해온 사끼야이다. 사끼야는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그 인삼술이 자기의 존재를 세상사람들의 부러움의 눈길우에 들어올려주는 천만금의 가치를 가진 보물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신통히도 두팔, 두다리를 가진 사람모양의 뿌리여서 더욱 진귀해보이는 조선인삼이 투명한 유리병의 노르스름한 액체속에 둥 떠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입에 군침이 돌게 하였지만 사끼야는 저도 한방울 마시지 않고 누구에게 마시라고 권하지도 않고 그저 빈번히 자랑만 해왔다.

그러면 저도모르게 환희로 두눈이 반짝인다.

《**김정은**동지께서 <사끼야선생. 그 인삼술 이젠 마시시오.>라고 하시면 그때 내 자네들에게도 한턱 쓰지.》

그의 마지막말은 늘 이렇게 끝났다.

이 말속에 그의 소원이 있는것이 아닐가.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주체의 한길만을 걸어온 자신의 한생을 **김정은**동지앞에서 총화짓고싶은…

그는 친구에게 말했다.

《자네 이 술을 팔라구 금방 말했지? 그래, 이 술의 값을 정할수 있겠나?》

《?!》